

## 치아파스에서 콜리마까지 — 멕시코 여행(4)

김수정

###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준 산크리스토발

1월 10일 토요일: 산크리스토발 도심 답사 — 마리아 엘레나 박사의 특강

1월 10일 오아하카에서 야간 버스를 타고 산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에 도착했다. 약칭 ‘산크리스토발’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해발 2,120미터에 위치해 있어서 고원 기후가 피부에 신선하게 와 닿는 곳이다. 주위가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도시이지만 그 역사는 깊다. 이미 식민 시대 초기인 1528년 스페인 인의 이주가 시작되어 식민 시대풍의 시가지가 정비됐다. 1893년 톱스틀라쿠티에레스로 이전하기까지 이곳은 치아파스 주의 주도였다. 물론 지금도 아름다운 성당이나 아치가 시내 곳곳에 남아 있다. 주변에는 옛 생활을 그대로 영위하는 원주민 마을이 많기에 산크리스토발은 그들이 교역하는 주 무대이기도 하다.

이 도시는 스페인 후손들과 지역 원주민들 사이의 고되고 오랜 갈등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94년 사파티스타 무장봉기가 시작된 곳도 바로 여기다. 시내에는 아직도 정부군이 주둔하고 있다.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은 멕시코의 작은 농민 무장단체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게릴라이기도 하다. 민족해방군이란 그럴 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검은 복면을 쓰고 총과 칼 대신 인터넷으로 자기네 주장을 펼친다. 전 세계 언론들은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에 대해 긍정적이다. 사파티스타 민



산크리스토발 광장

족해방군은 권력과 자원을 소수의 부자로부터 취해 다수의 민중에게 재분배하자는 슬로건을 걸고 산크리스토발에서 봉기했으나 정부군에 의해 정글로 쫓겨 갔다. 1995년 이들은 정부군과 평화협정을 맺고 정글로 돌아갔으나 어디까지나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직도 정부군과 반군은 완전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의 부사령관 마르코스가 정글에서 나올 때마다 전 세계의 언론인들이 이 도시로 몰려들 정도로 그는 오늘날에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산크리스토발의 원주민들은 대부분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된 기념품이 공공연히 시장에서 팔린다.

우리 일행은 일단 호텔에 들어가 짐을 풀고 도시를 둘러보기로 했다. 소칼로를 찾아 가는 도중에 산타 루시아 성당(Iglesia de Santa Lucía)에 들어갔다. 이제껏 멕시코 곳곳을 답사하면서 들른 여느 성당과는 달리 하늘색의 파스텔 톤으로 외관이 칠해져 이국적인 모습을 더해 주었다. 성당 내부는 그동안 보아 온 성당들처럼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돼 있지 않았다.

이 성당은 원래 1819년 지어졌다가 19세기 중반에 파괴됐다. 1884년부터 1892년까지 엔지니어 카를로스 플로레스(Carlos Flores)가 전통적인 건축 구조를 유지하면서 신고전주의 양식과 신고딕 양식을 갖춘 성당으로 새로 지었다.

산타 루시아 성당에서 나와 소칼로를 향해 걷는 내내 도시가 매우 한적하고 고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산 프란시스코 성당(Iglesia de San Francisco)을 잠깐 둘러보고 드디어 중앙광장에 도착했다. 여느 도시의 소칼로와 다름없이 가족단위의 많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짝지어 앉아 있거나 여유를 누리고 있었다. 개들도 거리낌 없이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즐기고 있었다. 멕시코의 모든 소칼로의 공간구조가 그렇듯이 이곳도 대성당은 서쪽을 향해 서 있었고 어김없이 정부청사 같은 건물이 보였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 앞에 많은 멕시코 남자들이 서 있었다. 군 입대를 홍보하고 있었던 것일까.

산크리스토발 시내에서는 선명한 민속의상을 입은 원주민들이 오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어서 식민 시대 분위기 속에서도 토속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다더니, 실제로 원주민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민예품을 들고 다니며 관광객에게 팔고 있었는데 많은 원주민들이 우리 일행에게 다가왔고, 싼 값에 팔찌와 술 등을 구입할 수 있었다. 아기를 업고 민예품을 팔러 다니는 그들을 보며 정착 자기네 영토에서 누려야 할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 같아 안쓰러웠다.

###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

산크리스토발의 오후 일정은 마리아 엘레나 박사를 만나 강의를 듣는 것이었기 때문에 약속 시간인 오후 네 시까지 소칼로 주변을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마리아 엘레나 박사를 만나기 위해 CIESAS로 향했다. 박사의

환영을 받으며 강의실에 들어선 우리는 〈위기, 사회 운동, 그리고 대안 모델—식량주권〉 (Crisis, Social Movements and the Alternative Model: Food Sovereignty)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40년대, 전쟁을 위해 모든 기술이 동원되고 종전 후 그 기술은 식량생산 분야로 몰리게 되었다. 1973년 미국은 식량 수출을 시작하고 농부들에게는 수출의 이익이 오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식량 가격은 계속 증가하고 다국적기업이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되면서 경제적 자본이 농업을 잠식하게 되었다. 초국적 기업의 등장으로 국가 범위에서 비교우위는 깨지게 되고 국가별로 특화 작물은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 이를 식량주권이나 식량안보로 표현하는데,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위협성을 스스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984년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이 창립된다.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구조를 지닌 이들은 다양성을 표방하면서 보안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다.

식량주권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FTA 관련 내용도 듣게 됐다. 우리의 국적이 한국이라 그랬는지 엘레나 박사는 2003년 칸쿤에서 개최된 WTO 반대시위 때 자결한 고(故) 이경해 씨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다음날 마리아 엘레나 박사와 함께 사파티스타 마을을 방문하기로 하고 숙소로 향했다.

## 복면 속에 가려진 모습

1월 11일 일요일: 오벤틱 마을 — 산 이시드로 마을

1월 11일 오전 9시 마리아 엘레나 박사를 만났다. 생각지도 못하게 미국 코넬 대학 학생들도 오늘의 일정에 함께 했다.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의 다섯 개의 핵심센터 가운데 하나인 오벤틱 마을로 향했다. 오벤틱 마을로 향하는 길은 매우 험준했다. 깊숙한 산골짜기에도 원주민들의 주

거지역이 곳곳에 형성돼 있었다. 전통가옥은 ‘아도베’, 즉 라테라이트를 굳힌 벽돌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여름에는 집을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장점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차창으로 살펴본 그들의 주택은 더 이상 아도베로 지어지지 않고 있었다. 미국 자본의 유입으로 그들의 집도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 심지어 코카콜라까지 산골짜기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다니!

한 시간 남짓 차를 타고 도착한 오벤틱 마을 앞에서 우리는 다소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첫째로,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이 활동하는 반군지역에 왔기 때문이었다. 둘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넬 대학의 학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곳을 답사한다는 가벼운 흥분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허가를 받고 오벤틱 마을로 들어서자 예상과는 달리 평화로운 마을 분위기에 새삼 놀랐다. 물론 허가를 받기 전에 함부로 사진을 찍지 못한다는 것과 허가를 받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규칙이 있긴 했다. 하지만 마을 밖 세상과 다를 것 없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이곳에는 훈타(Junta)라고 부르는 행정부가 있다. 한 주마다 여섯 개의 그룹에서 여섯 명의 훈타로 조직된다고 한다. 이들은 돌아가면서 토지와 지역 문제 등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한다. 사파티스타가 조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잘 유지되는 까닭은 이처럼 수평적인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오벤틱 마을은 여성 공동체 건물과 과일가게를 비롯해, 음식점, 병원, 학교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학교 등록금은 따로 없었고 음식으로 대체된다고 했다. 간단한 설명을 듣고 나서 이들에게 질문할 내용을 종이에 적어 주고 사진 촬영을 허락받을 때까지 밖에서 마을을 둘러보았다. 건물 벽에는 모두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모든 벽화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들의 주식량인 옥수수 낱알 하나하나에 그들의 얼굴을 그려 놓은 것이 눈에 띄었다. 달팽이 그림도 많이 볼 수 있었다. 평등을 상징하는 뜻이라고. 체 게바라와 프리다 칼로도 벽화에



오벤틱 마을에서

등장했다. 모두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된 이미지들이다.

마리아 엘레나 박사에게서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들은 전기도 스스로 공급했고 외부와 전혀 교류가 없을 줄 알았는데 실은 그게 아니었다. 이들은 자기네 상품을 외부의 시장에 내다 팔아 수익을 얻고 있고 마을 기부금을 도로, 학교, 병원 등에 이용한다고 한다.

그들은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사파티스타와 비사파티스타의 구분이 가능하단다. 그러나 사파티스타가 어떻게 되는지 뚜렷한 과정은 없다고 한다.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듣고 사진 촬영을 허가받은 우리는 오벤틱 마을을 둘러보며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야외로 나와 수업을 하고 있었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사방으로 뛰어다녔다.

19세기 중반 프랑스 점령 과정의 이달고부터 1910년 사파티스타 봉기까지 멕시코는 혁명의 역사를 지녀 왔다. 그러나 1910년대의 사파티스타

봉기는 그저 지역수준이었을 뿐 세계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1968년 멕시코 자치대학에서 학생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사회주의 이념 옹호 세력이 치아파스 정글로 많이 잠입했다. 사파티스타는 세계화로 인해 잃어 가는 자기네 것을 지키려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세계화에 의해 사파티스타 조직이 유지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세계화에 의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그럼으로써 또 세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오벤틱 마을의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건 아니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를 것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검은색 마스크 때문에 무섭고 다가가기 힘들게 만들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만든 가방과 인형, 그리고 여러 물품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었다. 가기 전까지만 해도 떨리고 조금은 무서웠던 오벤틱 마을에서 그렇게 만나절을 보내고 마을을 떠났다.

### 긴장감이 감돌던 산 안드레스 마을

차를 타고 한참 달리다 오후 3시쯤 산 안드레스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색달랐다. 마침 그날이 한 해에 한 번 있다는 축제날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들뜨고 즐거운 분위기의 축제와는 달리 뭔가 음산한 분위기가 묻어 나왔다. 마을의 축제가 이루어지던 중심 장소인 성당 안에서는 그동안 멕시코 곳곳에서 살펴본 성당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 원주민의 종교와 가톨릭이 혼성된 성당 안에서는 주술적인 분위기 속에 연기가 자욱하게 일고 있었다. 마치 성당 건물만 빌려서 자기네 종교의식을 행하기라도 한 듯. 오묘한 분위기가 형성된 그곳에서 성당 임원식 교체가 행해지고 있었다. 성당 안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저마다 돌아가면서 예수상 주위를 돌며 깃

발을 들고 성호를 그었다. 그런 다음에 밖에서 말에 올라탄 대여섯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그 깃발을 수여했다. 성당 밖으로 나와 그 모습을 지켜 보던 우리는 마을을 둘러보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대낮인데도 남자들이 바닥 곳곳에 드러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성당 앞에 모여 행사에 참여한 이들도 자기네 언어로 우리를 보며 시시덕거리고 있었다. 정숙해야 마땅할 신성한 성당 앞에서 그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보기에 가히 좋지 않았다. 마을에서 뭔가 다른 낌새를 느낀 우리는 그 장면을 뒤로 하고 재빨리 차에 올라탔다. 마을 밖으로 나가는 동안에도 술병을 들고 삼삼오오 짝지어 서 있는 젊은이들과 심지어 걷고 있다가 쓰러지는 남자도 볼 수 있었다. 축제란 본래 아침부터 술을 마시면서 거행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 그렇지만 산 안드레스 마을 사람들은 술뿐만 아니라 다른 약도 복용한 게 아닐까. 사파티스타는 원칙적으로 술을 금하기 때문에 이들이 비사파티스타라는 것도 알게 됐다.

## 산 이시드로 마을

다음 행선지는 산 이시드로 마을. 원주민 마을을 직접 방문하리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마리아 엘레나 박사의 도움으로 마음속 깊이 감동에 흠뻑 젖는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이 작은 마을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처음 보았는지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반갑게 맞아 주었다. 부족 이름은 ‘마라나타’였다. 마을 이장인 안토니오 쿠안 호세 씨가 나서서 자기네 소개를 해 주었다. 정부의 보조 없이 공동 작업을 통해 마을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이들은 35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다. 두 명의 남자와 두 명의 여자가 마을의 장으로서 두 해마다 돌아가면서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다. 오벤틱 마을에서도 느낀 바이지만 행정적 측면에서 남녀평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자기네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산 이시드로 원주민 마을

다음 우리도 역시 우리나라를 소개하고 멕시코에서 느낀 점을 간단히 소개했다. 그들은 우리의 말 ‘한글’을 신기해했다. 처음엔 우리를 낯설어 하던 아이들이 어느새 우리에게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가난한 살림에도 기꺼이 빵과 커피를 내어 준 마을 사람들이 고마운 한편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나 아이들이 우리가 주는 빵은 절대 먹지 않더니만 마을 어른들이 줄 때 그제야 먹는 모습을 보며 매우 미안했다. 우리들은 아이들과 친해져 함께 사진도 찍고 마당에 나가 축구도 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한 그 뭔가가 마음 속에서 솟구쳐 올랐다. 마리아, 아우구스틴, 파트리시아... 많은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해는 떨어지고 어둠이 몰려왔다. 도시와는 달리 산골짜기에서 맞는 어둠은 유난히 짙었다. 헤어짐이 못내 아쉬워 펜, 손거울, 핀, 핸드크림 등을 아이들 손에 쥐어 주었다. 섭섭한 마음과 훈훈한 마음이 엇갈리는 가운데 힘겹게 발을 옮겼다.

예정에도 없던 원주민 마을 방문 일정이었다. 원래 마야 유적지 팔렝

케를 가려고 했다가, 교통이 불편하고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것 때문에 팔렝케 일정을 취소한 것이었다. 하지만 더욱 소중한 값진 체험을 하고 왔기에 팔렝케에 대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

멕시코 원주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운동이었지만 이제는 반세계화 운동의 중요한 조직체로 우뚝 선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 멕시코의 중산층과 빈민의 지지를 고루 받고 있는 사파티스타를 직접 만나 다시는 경험하지도 못할 문화충격을 받았다. 원주민과 몽클하면서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산크리스토발에서의 뜻 깊은 체험이야말로 이번 답사과정 가운데서도 가장 각별한 인상을 남긴 일정이었다.

### 콜리마에서 멕시코의 경제를 살피다

콜리마(Colima)는 멕시코의 32개 주 가운데 세 번째로 작은 주다. 북쪽으로는 할리스코(Jalisco) 주, 동쪽으로는 미초아칸(Michoacan) 주 사이에 위치하며 서쪽으로 태평양을 끼고 있다. 과달라하라에서 콜리마까지는 자동차로 3시간 30분 정도 거리다. 시에라 마드레 산맥이 콜리마 주의 4분의 3을 지나기 때문에 곳곳에서 언덕과 산을 형성한다. 콜리마에는 두 개의 큰 화산이 있다. 휴화산 하나와 활화산 하나가 콜리마 주의 주도 인근을 지배하는 경관이 되고 있다. 두 개의 큰 강—콰우아야나(Coahuayana) 강, 마라바스코 시우아틀란(Marabasco-Cihuatlán) 강—이 콜리마 주를 관통한다. 160킬로미터(100마일)에 달하는 해안선 때문에 콜리마 주는 해변의 자갈부터 하얗고 검은 화산모래에 이르는 자연부속물을 가지게 됐다. 콜리마의 연평균기온은 25℃. 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해안지역으로서 36℃ 정도. 가장 낮은 북쪽 지역이 7℃다. 6월에서 10월에 걸친 우기에 평균 983밀리미터의 비가 내린다. 다행히 콜리마를 방문했을 때는 건기였기에 답사 내내 비가 내리지 않아 우천으로 인한 활

동의 지장은 없었다. 하지만 겨울을 무색하게 하는 더위와 습기 탓에 낮에는 야외활동이 힘들었다.

## 콜리마 대학(Universidad de Colima)

1월 12일 월요일: 콜리마 대학 특강 — 화산 답사

콜리마 대학은 1940년 9월 16일 설립됐다. 멕시코의 명문대학으로서 상위랭킹 5위 안에 드는 학교다. 재학생 수는 23,806명. 교수진은 1,438명에 이른다. 콜리마 주의 콜리마, 비야 데 알바레스(Villa de Alvarez), 코키마틀란(Coquimatlan), 테코만(Tecoman), 만사니요(Manzanillo), 이렇게 다섯 개의 캠퍼스로 이뤄져 있다.

콜리마 캠퍼스에는 콜리마 회계·경영학과, 사회작업학과, 교육과학과, 텔레마틱학과, 문예통신학과, 경영학과, 심리학과, 의학과, 간호학과가 있다. 비야 데 알바레스 캠퍼스에는 외국어학과, 경제학과, 교육학과, 철학과, 관광학과가 있다. 코키마틀란 캠퍼스에는 기계·전기공학과, 건축·디자인학과, 도시공학과, 화학과가 있다. 테코만 캠퍼스에는 수의학과, 축산학과, 생명·농업학과, 테코만 회계·경영학과가 있다. 만사니요 캠퍼스에는 항구도시에 걸맞게 해양과학과, 외국무역학과, 만사니요 회계·경영학과, 전기공학과 등이 있다.

이곳 학생들은 1, 2, 3차의 구두테스트를 통해 학점을 부여받는다. 최고점 10점, 최저점 0점이다. 5.9점보다 낮은 경우 낙제가 된다. 6점은 이수, 7점은 보통, 8점은 양호, 9점은 우수, 10점은 최우수이다. 캠퍼스를 둘러보고 있었을 때는 콜리마 대학의 방학기간이었지만, 8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재시험을 치르기 위해 등교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기 중에 적어도 80% 이상 출석해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콜리마 대학은 한국의 대학으로는 여섯 번째로 2009년부터 이화여대



멕시코 콜리마 대학교에서

와 교류를 맺게 됐다. 이화여대로서는 라틴아메리카의 대학과 첫 교류를 했다는 점에서 뜻 깊은 일이다. 콜리마 대학 측이 산출한 바에 따르면, 외국 학생이 콜리마에 거주하면서 콜리마 대학을 다닐 때 드는 비용은 한 달에 약 46만원이며 대학의 등록금은 한 달에 12만 원 정도다. 콜리마 대학에서는 외국에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스페인어를 배우려는 학생을 위해 EAP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초급·중급·고급의 3단계로 나누어 소수정예로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등록금은 12주에 1,550달러.

강의실은 깔끔하고 쾌적했으며, 전자칠판이 설치돼 있는 강의실도 있었다. 강의실마다 정수기가 마련돼 있었고, 암실 설비가 되어 있는 프레젠테이션 강의실도 따로 마련해 두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모든 강의실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화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산 모습은 꼭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런데 실은 단순히 전망을 위해서라기보다 학생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화산 모습을 보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콜리마 대학을 방문했을 때, 마침 정치사회과학대학의 학장이 친히 학교의 캠퍼스와 강의실 하나하나를 소개해 주었다. 또한 모두 다섯 사람의 교수가 멕시코의 역사, 정치, 대외정책, 경제, 사회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해 주었다. 3시간 30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스페인어를 모르는 우리를 위해 친히 영어로 된 자료를 사용하여 영어로 발표해 주었다. 그리고 콜리마에 머무르는 동안 콜리마 대학의 교수와 변호사가 우리와 함께 움직이면서, 학교의 밴 차량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등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 화산과 지진

콜리마는 해발 고도 508미터에 위치한 내륙도시다. 1900년, 1932년, 1941년, 1995년, 그리고 2003년 각각 큰 지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사적 건물들이 건재하다. 관광객들은 해발 4,323미터의 네바도 데 콜리마(Nevado de Colima) 화산, 그리고 이보다 더 활발한 화산활동을 보이고 있는 해발 3,980미터의 푸에고 화산(Volcán de Fuego)을 보러 콜리마를 방문한다. 이들 화산을 통틀어서 콜리마 화산(Volcán de Colima)이라고 부른다. 이들 화산은 최근 500년 동안 예순 번 이상의 분출이 있었다고 한다. 네바도 데 콜리마 화산은 멕시코에서 일곱 번째로 높은 산이다.

네바도 데 콜리마 화산에서는 간혹 만년설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눈을 보기 힘든 멕시코에서 눈을 볼 수 있다고 하여 스페인어로 ‘눈이 덮여있다’는 뜻의 ‘네바도’라고 불리게 됐다. 오늘날 화산활동을 멈춘 네바도 데 콜리마 화산은 보통의 산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일반인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다. 반면에, 푸에고 화산은 계속되는 화산활동으로 주변이 황량하고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화산은 활화산으로서 현재까지도 활동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로도 많은 폭발 기록을 남겨서 화산연구가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한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화산가스가 분출되고 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다. 우리도 실제로 화산 가스가 분출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

콜리마 지역에서는 화산 활동과 함께 지진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2003년 1월 발생한 리히터 규모 7.6의 강진으로 콜리마 주에서만 23명의 사망자와 16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 지진으로 인해 만사니요 시의 많은 건물이 붕괴됐다. 콜리마에서 500킬로미터나 떨어진 멕시코시티에도 영향을 끼쳐 도시 일부 지역이 정전되고 전화가 불통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런 까닭에선지 콜리마 시내 곳곳에서 인상적인 표지판을 볼 수 있었다. 가로세로 2미터 정도 되는 초록색 정사각형 가운데에 흰 점이 있고 그 점을 가리키는 화살표 네 개가 있는 바닥그림이었다. 이런 그림은 콜리마의 어디를 가든 항상 찾을 수 있었다. 지진이 일어나 주위의 건물이 무너져도 안전한 지점을 표시한 것이라고 한다. 콜리마 대학에서는 두 달에 한 번씩 지진 대피훈련을 한다. 사이렌이 울린 후 2분 안에 그 안으로 들어가야 실제상황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한다.

## 플랜테이션 답사

1월 14일 수요일: 파파야라임 플랜테이션 답사

콜리마를 대표하는 작물 파파야와 라임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먼저 파파야 농장을 답사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드넓은 평야에 파파야나무만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파파야에는 모양이 길쭉한 수파파야와 둥글둥글한 암파파야의 두 종류가 있다. 향이 역하지만 맛이 좋은 파파야, 무향이지만 맛이 떨어지는 파파야로 분류하기도 한다. 콜리마의 파파야 농장에서 재배하는 파파야는



콜리마 파파야 농장 방문

수출용인 수파파야(암파파야는 내수용)이며, 향이 좀 강하지만 맛이 좋은 파파야다. 파파야나무는 기계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지런하게 일렬로, 일정한 간격으로 심겨 있었다.

반면에 라임 농장에서의 라임 수확은 기계화가 되지 못했다. 라임을 수확할 때에는 사람의 육안으로 라임의 성장상태와 상품성을 판별해서 수확해야 하는 까닭이었다. 라임나무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매우 많았다. 숙련된 현지인 노동자들은 모두 긴팔 옷에 긴 청바지와 얇은 기업체 유니폼을 입고서 가시에 찢리는 것을 막고자 두꺼운 장갑을 끼고 수확작업을 했다. 한 기업체가 운영하는 이 라임 농장의 노동자는 전원 현지인이었다.

콜리마는 우리의 멕시코 답사 여정 가운데 마지막 코스였다. 지금까지 우리가 둘러본 멕시코의 여러 도시 가운데서 가장 깔끔하고 부유해 보이는 도시였다. 도시 곳곳에 콜리마 대학의 세련된 학부건물이 산재해 있고 잔디가 깔린 넓은 운동장에서는 아침마다 주민들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멕시코의 여느 도시와는 달리 소칼로 주

변에는 구걸하는 원주민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나가면서 본 가정집은 매우 단정하고 깔끔한 이미지로 다가왔다. 그래선지 콜리마의 주민들은 정이 넘쳐 보였다.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소칼로에서 열리는 저녁 음악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추었다. 사람들은 말을 타고 소칼로까지 나가 축제에 참가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만약 콜리마가 멕시코 답사 여정의 첫 도시였다면 다른 도시와의 이러한 차이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바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는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나라를 비록 짧게나마 체험하면서 멕시코에선 언제 어디서나 항상 축제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멕시코인 특유의 여유와 친절함은 선천적으로 그들 몸에 배어 있다는 걸 깊이 깨달았다. 한국의 이화여대가 중남미 지역에 첫 발을 내딛은 곳이 작지만 아름다운 도시 콜리마의 대표적인 학교 콜리마 대학인 건 행운일지도 모르겠다. 이곳에서 당당하게 학교의 이름을 드높이고 좋은 성과를 얻고 귀국하게 되어 이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다.

---

김수정 — 이화여자대학교 지리교육전공 (멕시코 프로젝트팀)